

# 情報社會와 公共圖書館(I) : 社會的 側面

B. Usherwood 著

吳 東 根 譯

〈全北大 文獻情報學科 講師〉

본고는 Bob Usherwood의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 (London, LA Publishing, 1989)의 'Prologue'와 'Part one The social context'를 번역한 것이다. 이책에서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공공도서관에 관련된 문제들을 사회적 측면, 정치적 측면, 경제적 측면, 커뮤니케이션적 측면, 직업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사회적 감시기관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기존의 접근법과는 전혀 다른 견해가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리라 기대한다.〈譯者註〉

## 序 言

‘죄송합니다만 저는 그것을 책에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여기는 도서관이지, 박물관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情報技術(information technology)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예술적 중요성을 검토한 시리즈물인 BBC 텔레비전의 유명한 *Welcome to my world*<sup>1)</sup>라는 프로에 등장한 사서가 한 말이다. 이 프로에서는 가까운 장래의 英國을 가정(예상)하여, 발전된 형태의 경제적, 기술적 국가사회주의(fascism)의 속박을 받게 되는 사회에서 情報가 갖게되는 役割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정보는 대단히 중요한 일상용품이 되고 책은 박물관에서나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의 행동과 프라이

버시는 전자감시장치와 이에 대한 인간의 지원을 통하여 감시된다. 이 情報時代에 있어서는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정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계는 반드시 그러한 방법으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로서 우리가 내리게 되는 선택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특히나 情報專門家(information professionals)의 가치에 좌우될 것이다.

시대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Bob Dylan이 예측한 방향과는 다르게 변하고 있다. 배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80년대의 변화라는 바람에 밀려 문명의 항구에서 떨어진 채로 아직도 그대로 바다에 떠있다. 이 변화는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칫 잊어버리기가 쉽다. 실제로 젊은 세대의 사서들은 우리가 한때 겪었던 것, 그리고 우리가 한때 가능하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는 거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에 일어난 여러가지 변화들은 우리의 공공봉사의 상당부분과 그에 의존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副作用을 가져다 주었다. 지난 9년 동안에 要求(need)라는 슬로건은 탐욕으로 바뀌어 버렸으며, 동정하기에 앞서서 비용을 먼저 생각하게 되고, 지역사회보다는 컴퓨터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다. 오늘날, 영국은 平等도 위축되고, 관심도 줄어들고, 문명화도 퇴보된 사회가 되어버렸다.

1) *Welcome to my world*, BBC Television Continuing Education, 1987.

이러한 변화들은 도서관 및 정보전문직의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1977년에 공식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분야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도서관 봉사였다.<sup>2)</sup>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 藝術·圖書館局은 공공도서관의 가치체계보다는 원가계산 시스템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sup>3)</sup>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가치를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러나 본인을 포함하여, 어떤 사람들은 일이 너무 지나치게 진행되어 버렸으며, 공공부문과 이에 종사하는 전문직원들은 이제는 최소한 공공도서관 직원들이 그 기본태도를 다시 평가하고 이를 다시 설명하도록 해야만 하는 자체의 議題를 설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로 하여금 정보와 아이디어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공공의 투자를 필요로 하는 公共의 所有物이라는 사실을 다시 설명할 필요가 있다.

生存이라는 직접적인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대답은 고사하고 질문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다. 사실상 그와 같은 질문은 관계도 없고 실제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현대의 직업적인 사고의 흐름도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에 대해서는 현재의 도서관관계문헌에서 분명히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헌에서는 오히려 우리 분야의 技術的業務나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 도서관교육의 상당부분에서도 또한 학생들로 하여금 “情報專門家”들이 차지하고 있는 종이가 없는 중간지대에서의 경력에 대비하도록 하는데 만족하고 있으나,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공중들은 실제로는 더 많은 司書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sup>4)</sup>

본고의 목적은 공공도서관과 그 공헌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커뮤니케이션적, 직업적 측면

면에서 고찰함으로써 몇가지 중요한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기하기 위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체제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다.

또한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책들도 있다. 본고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며, 또한 그렇게 보이려는 의도도 없다. 대부분의 경우, 사서들은 비록 그 市場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아이디어의 市場에는 많은 진열대가 놓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대규모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의견충돌은 생기기 된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결책을 찾지 못하게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merson이 말한 것처럼, ‘어리석은 一貫性은 소견이 좁은 개구장이’<sup>5)</sup>인 것이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도 변화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중요하고 값진 시설들을 파괴해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변화의 바람에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차가운 바람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強力한 機構가 세워지게 된다. 우리는 공공도서관 봉사의 機構가 세워진 원칙과 가치를, 충분한 이유없이, 포기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하나의 집단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價値, 우리가 도서관전문직으로서 채택하고 있는 가치는 결국 모든 기술과 경제 이론, 새로운 이데올로기보다도 더, 우리의 미래세계를 훌륭하게 갖춰줄 것이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으며 우리는 서로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대안은 있게 마련이다. 실제로 우리가 앞서 설명한 세상을 피해야만 한다면, 그렇게 해야만 한다.

2)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The libraries' choice*,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 10), HMSO, 1978.

3) Office of Arts and Libraries, *A costing system for public libraries*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 17), HMSO, 1987.

4) Berry, J., 'What's in a name?' *Library Journal*, 112 (13) August 1987, 4.

5) Emerson, R. W., *Essays*, Dent, 1906.

第1部 社會的 側面

1. 公共圖書館의 社會的 機能

Archie MacNamara는 1920년대에 County Durham의 分館長이었다. 광부의 아들인 그는 오늘날 우리가 지역사회의 사서 (community librarian)라고 부르는 사람의 모델 자체였다. 1926년의 總罷業으로 절정에 달했던 파업기간 동안 그는 지역사회 활동의 지도자였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노동자들로 하여금 당국과 탄광의 소유자들, 貧民戶호법委員會 (Poor Law Guardians)와 협상하도록 이끌었다. 그는 지역사회의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과격한 정치인이나 혁명가가 아니었다. 단지 자기가 봉사하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도서관을 운영했을 뿐인 것이다.<sup>6)</sup>

소련인인 동료로부터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1919년에 농부들이 세운 도서관에서 근무했던 한 사서'에 관한 것이었다. '도서관이 정치적인 선동의 센터가 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사서는 이용자들이 소련정부의 법령과 명령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讀書資料를 정리하였다. ... 이용자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든 벤치와 의자를 차지하게 되었고 심지어는 마루바닥에까지 앉게 되었다.'<sup>7)</sup>

그들이 일부를 이루고 있는 사회를 떠나서는, Archie MacNamara 도서관이나 러시아의 근세 도서관의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다. 公共施設로서의 공공도서관은 그 사회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결과가 되기도 한다.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너무나도 많은 도서관들이 변화하게 되지만, 그러나 도서관과 사서들은 또한 사회를 변화시켜 주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 힘이 사용될 수 있는 또는 그 힘이 사용되어야 하는 範圍가 틀림없이 약간의 논쟁

거리가 될 것이다. Pat Schuman이 십여년 전에 제기한 문제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절성을 갖고 있다. '사회적인 동요에 대하여 도서관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 사서들은 政治的인 活動家가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사회적 부당성의 희생자들을 위한 옹호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 때는 언제인가? 우리는 거대한 社會的 變化에 대처하거나 이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인가?'<sup>8)</sup>라고 그녀는 말하고 있다.

우리가 던지게 되는 질문의 종류는 상당부분은 그 주제에 대한 개인적인 시각에 의존하게 된다. 우선 본인의 견해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인은 情報와 思想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가 되는 것이며, 모든 시민은 인종이나 믿음, 경제적인 지위에 관계없이, 이에 대하여 자유롭고 동등하게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인은 또한 사회와 사회에 있어서 우리 직업의 위상을 80년대에 너무나도 풍미했던 저속하고 수준낮은 가치에 의해서 보다는 사회적으로 핸디캡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을 대우하는 방식에 의해서 판단하고자 한다. 이러한 것들은 유행에 따르는 견해는 아니지만, 圖書館界에는 서로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를 들면, 정보를 사고 팔 수 있는 상품으로 취급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틀림없이 본인이 여러분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질문에 대하여 아주 다른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지방정부의 한 부서이다. 따라서 그 역할은 부분적으로는 지방당국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地方當局은 환경, 인명 및 재산의 보호, 건강, 사회 및 복지봉사, 교육, 여가 및 문화시설, 지역사회 내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같은 일에 대하여 책임을 갖게 된다. 그러나 *Bains Report*에서 제기

6) The story of Archie MacNamara is told by Conway, P. , in 'Credibility in the community', in Usherwood, B. , ed. , *Professional Persuasion*, Association of Assistant Librarians, 1983.

7) Quoted in Afanasjev, M. D. , 'Social and cultural functions of public libraries',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IFLA International Seminar Proceedings Moscow, 22-24 May 1984), IFLA section on library theory and research, Ministry of Culture, the USSR, Lenin State Library of the USSR, Moscow, 1987, [Russian text].

8) Schuman, P. G. , ed. , *Social responsibilities and libraries*, New York, R. R. Bowker Company, 1976.

한 것처럼, '지방정부는 그 지방의 지역사회에 대한 단순한 봉사의 제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그 범위 안에는 그 지역의 총체적인 경제적, 문화적, 물질적 福祉가 포함되는 것이다.'<sup>9)</sup> 공공도서관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Public Libraries Research Group은 공공도서관 봉사의 目標와 目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인생의 모든 측면—교육적, 경제적, 산업적, 과학적, 문화적 측면—에서 질 높은 삶을 유지시켜 주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전체적인 행복과 자기 자신과 동료, 환경에 대한 인식의 증진을 가져다 줄 총체적이고 均衡的인 人格을 갖춘 진정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존재하는 민주사회의 개념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는 것. 이러한 공헌은 다목적의 情報傳達—교육—文化機關으로서의 공공도서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이는 요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서 및 그와 관련된 형태로 인간의 경험에 대한 기록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情報과 思想의 자유로운 유통을 증진하고 촉진시켜야 한다.'<sup>10)</sup>

공공도서관의 전통적인 역할 가운데는 자료의 보존, 연구와 교육의 지원, 정보의 제공, 여가 및 문화시설의 제공이 포함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역할가운데 어느 하나에 중점을 두게 되는 것은 물론, 장소와 시간에 따라서 다양해질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서는 記錄物의 管理者로서 비쳐져 왔으며, 오늘날 우리는 보존의 입장에서 그 자체의 도전을 제기하게 되는 뉴 미디어들에 직면하고 있다. 자료를 보존하고 유지함으로써 도서관은 총체적

인 정신을 나타내게 되고 또한 사회의 기억장치가 되고 있다. 소련의 한 동료는 레닌 도서관의 장서를 '우리 사회의 유일한 記錄物'<sup>11)</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중요한 역할이며, 아마도 독특한 역할일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장서에는 현재의 사상 뿐만 아니라 수세기에 걸쳐 모아 온 思想과 情報가 포함되어 있다. 이들 정보와 사고는 특히 '침략자가 희생자들의 문화를 파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sup>12)</sup> 경우에는 현재의 어떤 정권에는 당혹스런 것이 될 수도 있다.

그와 같은 조치는 어느 한 국가나 이데올로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다음에 다시 살펴보겠지만, 체코 슬로바키아에서는 소련의 침공이 있을 후 도서관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있었다. 또한 Stepachjov가 인용하고 있는 印度의 新聞 *Newpoint*에서는 '이스라엘 기관의 목표 가운데 하나가 도서관으로 잘 알려져 있는 팔레스타인 연구센터의 파괴'<sup>13)</sup>였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全體主義 정권의 타겟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James Thompson의 말을 인용하면, '어느 곳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존재하는 한, 전국적 국제적 洗腦作業은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sup>14)</sup>

그와 같은 장점은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공도서관이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건강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 직업에서 다루는 原資料인 정보와 사고는 중요하고 필수불가결한 국가적 자원인 것이다.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히 살펴보겠지만,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해설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만일 'Karl Marx가 현대에 살고 있다면, 그는 「資本論」

9) *The new authorities : management and structure*(Bains Report), HMSO, 1972.

10) Heeks, P. and Turner, P., eds, *Public library aims and objectives*, Public Libraries Research Group, 1981.

11) Morozova, I. V., 'The role of the USSR State Library named after V. I. Lenin in the cre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ingle multinational culture of the Soviet people',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1987), op. cit.

12) Stepachjov, L. M., 'Reading as a means of mutual understanding among nations',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1987), op. cit.

13) *Ibid.*

14) Thompson, J., *Library power*, Bingley, 1974.

(*Das Kapital*)이 아니라 「情報論」(*Die Information*)을 썼을 것이다.<sup>15)</sup>

비록 초창기의 몇몇 공공도서관운동의 주창자들은 교육적 기능을 飲酒와 범죄에 대한 유용한 대안으로 간주했던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教育에 대한 투자는 공공도서관봉사의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주요부분이 되어 왔다. 1850년의 법안에 대한 논쟁에서 한 의원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는 곳에서는... 근로자들이 술집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습관을 길러줌으로써... 근로자들에게 대단히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공도서관은 방탕한 생활에 대한 유혹을 감소시켜 주게 되며, 그 결과 게으름과 범죄도 줄어들게 된다.'<sup>16)</sup> 이처럼 다소 이상하게 시작되기는 했지만, 공공도서관은 萬人의 大學으로 발전하여, 공식교육제도에 대한 보조수단과 시간제교육에 대한 주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옛날의 職工圖書館(Mechanics' Institute)의 학생과 인쇄자료 및 방송자료를 통하여 공부하는 開放大學(Open University) 학생은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것이다.

도서관은 또한 더 기본적인 교육적 욕구에 부응해 왔다. 도서관은 '독서문화의 필수적인 전제조건'<sup>17)</sup>으로 설명되고 있다. 70년대 중반에 도서관은 英國의 成人文盲退治運動(Adult Literacy Campaign)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읽고 쓰는 능력의 수준은 정확하게 설정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영국 국민 가운데 약 2백만명이 機能的으로 文盲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이것은 일부의 저개발국에 비하면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역

시 심각한 문제이다. 그리하여 1975년 공공도서관 당국의 75퍼센트가 文盲退治奉仕를 제공하거나 이를 고려하게 되었다. 여기에는 보호자에 대한 봉사, 레퍼럴 봉사, 적절한 독서자료의 제공, 독서클럽의 결성이 포함된다.

세계의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文盲은 단지 개인적인 어려움 이상의 것이며, 그것은 아마도 인간의 사회적 기술적 해방에 대한 가장 중요한 장애가 될 것이다.'<sup>18)</sup> 니카라과에서는 Sandinista 정부가 도서관과 도서관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자금을 지원하였다. 독서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노동자와 그 자녀들을 위한 移動圖書館이 마련되었으며, 독서습관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실제로 도서관은 '교육적 문화적 목표를 가진 혁신과정'<sup>19)</sup>의 핵심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국에서는 읽고 쓰는 능력이 支配階級の 생활양식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 되어 왔다. 역사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를 통하여 읽고 쓰는 능력이 정부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에서 수행해 온 역할을 살펴보고자 한다. 中世에 있어서는 教會에서 도서제작에 대한 통제를 통하여 學問文化를 유지하고 교황의 권력을 합법화하였다. 印刷術의 등장 이후에 있어서조차도 읽고 쓰는 능력이 불균등하게 파급됨으로써 인쇄물의 주된 이용자들은 교회와 교육관계자가 되게 되었다. 오늘날에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등장했지만 우리에게는 기본적인 우려가 다소 남아 있다. '1984년은 지나갔다. 그러나 情報技術이 민주적인 정치형태를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sup>20)</sup> 단지 소수의

15) Quoted by Ploman, E. W., 'The communications revolution', *Aslib Proceedings* 33, (10), October 1981, 373-82 (the 1981 Aslib Lecture).

16) Hansard Parliamentary Debates, 3rd. series, CIX, 1850, 849(The MP was P. Howard).

17) Vakkari, P., 'Social structure, book reading and the function of public libraries'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1987), *op. cit.*

18) Mangla, P. B., 'Role of the public library in development countries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literacy',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1987), *op. cit.*

19) De Pena, M. M.,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social and cultural development in Nicaragua', in *Role of books and reading in cultural development* (1987), *op. cit.*

20) Kling, R., 'The struggles for democracy in an information society', *The Information Society*, 4 (1/2), 1986, 1-7.

특권층에 대해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정보와 사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공공도서관의 傳統的인 役割은 이제 새로운 기술이 포함되도록 다시 정의되어야만 한다. 오늘날에는 '수백개의 통신위성이 눈에 보이지도 않은 채 지구 주위를 돌고 있고 데이터뱅크에는 이미 수억건의 사실들이 축적되어 기술자와 사업가, 戰爭狂, 정치인들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우리들 다른 사람은 이를 사용할 수가 없다.'<sup>21)</sup>

新技術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상세히 검토하겠지만, 우선 우리는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여가 자료의 제공자로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을 과소평가 해서는 안될 것이다. Thomas Greenwood가 일찌기 말한 것처럼, '小説은 단지 흥미거리가 아니다. 그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한, 기계적인 업무의 단조로움에 대한 필수적인 平衡錘인 것이다.'<sup>22)</sup> Greenwood가 도서관자료가 여가적 용도로 활용되는 기능들을 시도하고 발견하기 위하여 그와 같은 말을 한 이후로, 그 말은 되풀이 되었지만 그에 대해 이루어진 것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 스스로가 책과 신문, 레코드, 비디오, 카세트, 그 외의 도서관장서의 다른 부분에 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발견해낼 필요가 있다. 그것들을 사용하여 어떤 요구를 만족시키게 되는가? 다음 부분에서 암시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질문 가운데 어느 것은 매스미디어 연구자들에 의해 개발된 어떤 기법들을 도서관 연구자들이 도입하게 되면 해결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에는 어떤 사서들은 공공도서관의 餘暇의 文化的 役割에 대하여 오히려 인색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겨우 18년 전에야 비로소 우리 분야의 지도적인 전문가의 한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노인들에게 大衆小説을 제공하거나, 신혼부부에게 도배에 관한 책을 제공하거나, 인스턴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文化인 것이다; 좁은 의미에서 문화란 'H.G. Wells와 William Morris에 의해 서로 다른 방법으로 그려지게 되는 문명사회의 문화의 일종'<sup>23)</sup>으로 정의된다.

이는 문화의 성격과 정의에 대하여 몇가지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현재 영국은 多文化的 社會 (multi-cultural society)이므로 그와 같은 정의는 훨씬 더 복잡하게 된다. 공공도서관은 고급문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적합하겠지만, 대중문화와 통속문화, 지방의 지역사회문화의 견지에서 수행하게되는 역할도 갖게 된다. 상류사회의 취향에 편승하는 데는 모든 종류의 위험이 따르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또한 商業化의 더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 외에도 도서관에 있어서의 문화적인 격차(cultural gap)는 단지 世代差(generation gap)의 結果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기준은 사회에 의하여 부여되는 것이며, 어떤 文化的 對象에 대하여 주어지는 가치는 사회의 지배계급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Parkin에 따르면 "支配階級の 음악적, 문학적, 예술적 취향은 긍정적인 평가와 일치하는 반면, 從屬階級の 전형적인 문화적 취향과 추구 방향은 부정적으로 평가된다."<sup>24)</sup> '물질적 영향력(material force)을 지배하는 사람들의 계급이 동시에 知的 影響力(intellectual force)을 지배하는 사람들'<sup>25)</sup>이라는 Marx의 널리 인용되고 있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21) Benge, R., *Confessions of a lapsed librarian*, Metuchen, N. J., Scarecrow Press Inc., 1984.

22) Greenwood, T., *Public libraries*, 4th ed., Simpkin Marshall, 1981.

23) Gardener, F., 'Top or pop', *Library World*, 70 (823), January 1969, 179-82.

24) Quoted in Hartley, J. and Hawkers, T., *Popular culture and high culture* (DE353 Unit 4),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1977.

25) Marx, K. and Engels, F., *The German ideology*, Laurence and Wishart, 1970.

Marx의 말을 통하여 變化的 要因(agents of change)으로서 책과 도서관이 수행하는 역할을 설명할 수 있다. Marx는 도서관을 이용하였고, 책을 읽었으며, 비록 세상을 완전히 바꿔주지는 못했지만 그 상당부분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대단한 영향을 미친 여러 권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러나, 지배계급을 전복하고자 하는 사상들은 急進的인 出版社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고급문화의 일부에 속하는 출판물과 예술품을 통하여 유포되었으며, 현재도 유포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浪漫主義 작가들의 문학과, 정치적인 철학자들의 저서, Picasso의 미술품, 그리고 前衛藝術家(avant garde)의 많은 작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기능들은 정보와 사상의 조직화 및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것이었다. 情報技術에 대한 놀라움이 계속적으로 축진되고 나타나게 되는 세계에 있어서 조차도, 공공도서관은 중요한,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일한 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을 갖게 된다. Roszak가 최근에 밝힌 바와 같이, '우리는 "思考의 技術"(art of thinking)을 정보 및 컴퓨터 기술자가 인식하도록 맡겨둘 수가 없다... 사서들은 어떤 기계도 지금까지 제공하지 못한 것, 즉 살아있는 마음(lively mind), 생각하는 존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sup>26)</sup>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충분치가 못하다. Paul Wasserman이 말하는 '技術的 偏狹性'(technical provincialism)은 '고립과 부적합성을 초래하고 결국에 가서는 낙후성을 가져오게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사회적 반응이 없는 기술은 더 이상 충분한 것이 될 수 없다는 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다.'<sup>27)</sup>

일반시민이 수많은 중요한 문제에 부딪치게 되고 이로 인해 혼란을 일으키며 이를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 세계에 있어서는 社會的一情報傳達의 反應이 점차 중요성을 갖게 된다. 정보와 사상에 대한 효율적인 접근은 시민이 그 시대의 여러 문제를 잘 알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주게 되며, 그것은 또한 지식을 갖고 투표에 참가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켜 준다. 그 자체로서 그것은 民主主義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Archibald Macleish의 말처럼, 도서관은 '민주주의의 과정에 있어서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能動的인 機關이 되어야 한다.'<sup>28)</sup>

1960년대에는 몇몇 사서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공공도서관직은 외부세계에서 발생하는 여러사건과 동떨어져서는 운영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美國圖書館協會의 한 출판물에서는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서관은 오염과 폭력에 둘러싸여 있으며 核에 의한 소멸(nuclear extinction)이라는 공포하에 놓여 있다. 인종적인 긴장과 사회적 불안은 일상업무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 -이와 같은 공포를 무시하는 것은 더 없이 어리석은 일인 것 같다.'<sup>29)</sup>

어떤 사람들은 공공도서관직이 비도서관적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관여하는 것은 司書의 中立性(neutrality)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만일 도서관이 사회적 영향력(social force)을 가져야 한다면 예를 들면 制度化된 人種差別政策(institutionalized racism)과 같은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는 중립을 지킬 만한 여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나아가 우리는 사실상 공공도서관은 결코 중립을 지킨 적이 없었으며, 개념상으로는 몇몇의 가장 急進的인 思想들-평등, 상업적인 이윤보다는 요구에 대한 대비, 교육적인 진보, 정보와 사상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자유로운 표현-을

26) Roszak, T., speaking at the 1987 ALA Conference and reported in 'Social issues and ALA organization', *Library Journal*, 112 (13), August 1987, 27.

27) Wasserman P., 'Professional adaptation: library education mandate', in Schuman, P., ed., (1976), *op. cit*

28) MacLeish, A., quoted in Seymour, W. N., Jr., and Layne, E. N., *For the people: fighting for public libraries*, New York, Doubleday and Co, 1979.

29)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Final report of the Activities Commission of New Directions for A. L. A.*, 1970.

구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같은 문제들을 지지하는 것은 대단히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분명히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

中立性은 우리가 더 이상은 누릴 수 없는 사치스런 것이다. 시인으로 한때 미국의회도서관장을 역임한 Archibald Macleish는 '學者를 위한 이야기'(Speech to scholars)<sup>30)</sup>에서 이를 여러해 전에 언급하고 있다. 그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 책에 길들여진 學者들이여,  
오 면면을 숨쉴있게 읽어내는 독자들이여,  
이제는 그대의 노고에서 어서 일어나,  
이러한 戰時를 맞이했으니 이제는 전쟁터로 달려  
나가라.

그대의 학식이 남용되고 있는 이상,  
그 전쟁이 임박한 이상,  
그대가 이제 집안에 있다면들 平和로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전쟁의 회오리에서 여전히 中立을 지킬  
것인가?

Macleish는 國家社會主義의 등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우리들 각자가 바로 우리의 '戰爭'을 인식하고 그에 따라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니카라과의 사서에 의하면 도서관은 '50년간의 독재정권과, 文盲, 죽음, 파산된 경제에서 벗어나'<sup>31)</sup> 이루어진 국가재건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고 한다.

영국에 있어서 도서관직은 '[영국도서관협회] 회원들은 인종이나 피부색, 主義, 성별, 성적인 방향을 바탕으로 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을 기본적인 목

적으로 하는 자료를 고의로 선전하지는 않을 것'<sup>32)</sup>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行動規約(Code of Conduct)을 마련하여 사악한 인종적 차별과 그 밖의 여러 형태의 차별에 대응해 왔다. 실제로 몇몇 사서들은 적극적인 藏書選擇政策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불평등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맨체스터(Manchester)市에서는 도서관의 서가로부터 모독적인 방법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어떤 특정인종의 사람들을 묘사하는 자료를 제거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여러 인종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자료를 그 도시의 모든 도서관을 위하여 선정하기 위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sup>33)</sup>

세필드(Sheffield)에서는 文獻情報奉仕局長(Director of Library and Information Services)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세필드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동시에 주제분야에 대해서도 균형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주류를 이루는 출판사들의 작품 속에서 선전되고 있는 보통의 백인, 중류계급, 男女差別主義者(sexist), 군국주의적 관점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sup>34)</sup>

그와 같은 정책을 운용하는 것과 사서가 知的自由(intellectual freedom)를 지키는 것 사이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의 긴장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대해서는 후에 상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는 정연한 또는 논리적인 해답이 있을 수 없으며, 그 해결책을 찾는 데 있어서는 약간의 갈등을

30) At the time of submitting this manuscript I have unable to obtain a copy of MacLeish's 'Speech to scholars'. I believe it forms part of his *Public speech* published, according to the *Oxford companion to American literature*, in 1936.

31) De Penna (1987), *op. cit*

32) Library Associatio Code of Professional Conduct adopted at Library Association Annual General Meeting 1983. Published in *Library Association Record*, 85 (7/8), 1983, 284.

33) City of Manchester Cultural Services, 'Services to ethnic minorities', *mimeo*, nd.

34) Sheffield City Libraries, 'Review of management structure and staffing', report presented to Sheffield Libraries and Arts programme Committee, 22 March 1984.



감수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알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에는 수많은 상충되는 경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蒐書政策이나 심지어는 자유로운 접근조차도 공공도서관의 사서나 그들의 정치적 지배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제시하는 것은 분명히 판단을 그르치게 될 것이다.

공공도서관의 社會的 機能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제일 핵심이 되는 것은 ‘情報’에 관한 우리의 관점이다. 정보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간주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시장구조에 따라 분배되는 일상용품으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가? 공공도서관의 사서는 정보의 제공 그 자체를 하나의 목표로 간주하는가, 아니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공공도서관이 變化的 要因으로 간주된다면, 그 봉사를 실시하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역할속에 내재해 있는 개인적, 직업적, 정치적 갈등에 부딪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러한 고려는 우리의 공공도서관봉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專門家들의 役割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집단적 책임에 관한 여러가지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일반적인 공공봉사에 대한 논의와 마찬가지로, 공공도서관에 관한 전문적인 논의는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사회와, 그 구성원의 삶의 기회(life chance)를 증진시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기 때문이다.

## 2. 圖書館과 삶의 機會

Jock Murison은 1971년에 공공도서관의 사회적 배경을 고찰하여 ‘社會的 同類集團’(community of social equals)에 관하여 언급하면서, 동시에 ‘한때

아주 분명하게 경제적 계급으로 정의되었던 것들 사이에서 사회적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sup>35)</sup>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1987년 말에 글을 쓰면서 최신의 어떤 연구에 대한 신문의 보고서를 보게 되었는데, 그 연구에서 ‘지난 10년 동안... 不平等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總給料水準(gross pay level)에 있어서의 불균형의 심화’를 강조하고 영국의 남부와 북부 사이의 격차가 증가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영국 주민의 3분의 1은 최근의 상대적인 번영의 증가 속에서 소외되고 있다’<sup>36)</sup>고 밝히고 있다.

不平等은 단순히 개인적인 능력과 적성의 문제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사회적 사실이다. 어떤 개인의 삶의 기회와 능력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에서 그 개인이 차지하는 위치의 결과인 것이다. 평등이라는 이념은 공공봉사의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Heald에 의하면, ‘福祉國家의 주창자들은 불평등한 출발점과 시장에서의 교환과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생겨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방식은 특정한 개인과 특정계급의 삶의 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하게 된다고 주장해 왔다’<sup>37)</sup>고 한다.

공공정책과 공공도서관과 같은 公共施設은 이러한 불평등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도록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Luckham<sup>38)</sup>등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19세기 중에 공공도서관은 교육적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의 입장에서 지식과 정보가 재분배될 수 있는 과정의 일부로서 간주되었다. ‘미국에서는 社會的 平等이 초창기 공공도서관의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영국에서는 도서관은 노동자 계급에게 사회의 부유층이 누리는 것과 동일한 시설을 제공해 줌으로써 社會的 隔差를 均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sup>39)</sup>

35) Murison, W. J., *The public library*, 2nd rev. ed., Harrap, 1971. (Third revised edition published 1988 by Clive Bingley Ltd, London.)

36) ‘TUC pinpoints growing inequality in earnings’, *The Guardian*, 29 December 1987, 5

37) Heald, D., *Public expenditure*, Martin Robertson, 1983.

38) Luckham, B., *The library in society*, The Library Association, 1971.

39) Murison (1971), *op. cit.*

공공도서관은 그에 대한 접근이 개인의 지불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상품과 봉사가 존재한다는 이제는 사라져버린 습의 일부이다. Pahl의 말처럼, '사회의 한 유형으로서의 福祉國家의 이념 가운데 하나의 흐름은 여러 시설에 대한 접근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풍요로움보다도 要求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sup>40)</sup> 공공도서관은 잠재적으로 풍부한 정보에 대하여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를 재분배하기 위한 도구를 마련해주는 수단이 된다. 情報과 讀書, 읽고 쓰는 능력은 개인의 삶의 기회에 있어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접근은 중요한 것이다. Lacy Report에 의하면, '얼마나 자유롭게 그리고 얼마나 공평하게 시민들이 지식에 대하여 접근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지배와 우리 경제에서의 업무와 보수에 있어서 얼마나 자유롭게 얼마나 공평하게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된다.'<sup>41)</sup> 나아가 '자신들의 생활을 침해하는 다양한 종류의 官僚制度(bureaucracy)에 대하여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더 적은 사람들은... 바로 저학력, 열악한 주거조건, 낮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sup>42)</sup>이다. 사실상 그와같은 혜택의 부족은 시설의 부족 못지 않은 情報不在의 결과라고 많은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를 통하여 정보에 대한 어떤 종류의 접근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을 많은 사회비평가들은 영국사회의 不平等을 合法化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몇가지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다. 예를 들면, Ralph Miliband는 그러한 미디어는 '支配制度의 표현인 동시에 이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sup>43)</sup>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여러가지 방법, 예를 들면 中道派 정

치 가운데 급진파의 가장 부드러운 형태를 제외한 어느 것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중간입장과 일반적인 노동조합에 대한 반대입장으로 나타나게 된다. 텔레비전 뉴스, 그리고 특히 타블로이드판 신문은 대개 국가의 산업적,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한 비난이 勞動力의 탓으로 돌려지게 되는 사회의 양상을 제시하게 된다. Glasgow大學의 연구자에 따르면, '그것이 나타날 때에 무시되거나 묵살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뉴스제작자가 활용하는 推理의 구조를 도와주는 것으로 취급되는 모순된 증거에도 아랑곳 없이 이것은 이루어지고 있다.'<sup>44)</sup> 많은 텔레비전 오락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은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Casualty*와 같은 작품에서 새로운 다른 시나리오를 제시하게 되면 정치적인 편견을 가진 것으로 비난받는 것은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다.

Marx는 몇십년전에 '支配階級の 사상은 어느 시대에 있어서나 일반적인 사상이 된다. 물질의 생산 수단을 자신의 의사대로 갖게 되는 계급이 동시에 精神的 生産手段도 통제하게 된다'<sup>45)</sup>고 말하고 있다. 오늘날의 통신산업에 있어서는 현재 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곤 거의 없다.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것은 여전히 지배계급의 사상이다. 또한 實業界는 예를 들면 그 미디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조종하도록 조절을 제거함으로써 더 많은 자유를 얻어내고 있다.

영국의 생활의 여러 부분에 있어서는 現狀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갖도록 하는 것이 위험한 것은 아니더라도,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예를 들면 대학교에 있어서는 정부가 교수의 終身在職權(tenure)을 철폐하려 하고 있으

40) Pahl, R., 'Poverty and the urban system', in Chisholm, M., and Manners, G., eds., *Spatial policy problems and the British econom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41) *Freedom and equality of access to information* (Lacy Report), Chicago,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1986.

42) Burrington, G., 'Perceptions of libraries and librarians: a study of attitudes in two contrasting areas, in British Sociological Association, *Information and society*, School of Librarianship, Leeds Polytechnic, 1981.

43) Miliband, R., *The State in capitalist society*, Quartet Books, 1973.

44) Glasgow University Media Group, *Bad news*, Routledge and Kegan Paul, 1976.

45) Marx, K. and Engels, F., *The German ideology*, Lawrence and Wishart, 1970.

나 학문의 자유와 자유로운 강연을 보장하는 올바른 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찾아내려고 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Hugo Young에 의하면, 이는 단지 이론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정부를 온건한 방향으로 유도한다 하더라도, 대학의 새로운 후원자인 實業界는 어떠한가? 종신택직권이나 법적인 보호가 없다면, 그의 연구가 제약산업계의 후원자에게 폐가 되거나 原子力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연구자를 부총장이 '마땅한 이유로' 해고시키지 않는 것이 얼마나 용이한 일이 될 것인가?<sup>46)</sup>

이미 대기업과 그 자체가 대기업이 되어버린 상당수의 미디어는 個人的인 取得이 개인의 성취에 대한 유일한 수단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주요한 수단인 것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풍조를 유포시키고 있다. 물론 계급없는 消費者社會의 사상을 증진시키는 것도 그들의 관심거리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국민들은 어떤 특정의 생활방식을 조장하는 일련의 메시지에서 끊임없이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텔레비전 프로듀서의 말을 빌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제껏 자기들 앞에 놓여진 세계를 적절히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은 어떤 사실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보다는 오히려 偏見에 의해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sup>47)</sup>는 사실은 놀라울 것이 없다.

Gramsci<sup>48)</sup>가 支配權(hegemony)이라는 개념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지배제도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被支配階級에 의해 받아들여지게 된다. 실제로 좌파적인 성향의 몇몇 사람들은 영국에서 혁명적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無產階級(proletariat)이 특권계급에서 선전하고 있

는 사상으로 인하여 혼돈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왔다. Parkin<sup>49)</sup>이 풍자하고 있는 것처럼, 그와 같이 잘 속아넘어가는 무산계급이 또한 어떻게 社會革命의 先鋒이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알아내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의 시민들이 옛날의 시민들에 비하여 더 잘 알고 있고 지적인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과거보다 더 공평하게 파급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도 '더 공평하다는 것이 평등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政治的 커뮤니케이션의 資源은...여전히 재산과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방식으로 분배된다'는 문제가 남아있다.<sup>50)</sup>는 것을 인정한다. 한 해설가에 의하면,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을 심화하고 훈련시키는 실제의 업무는 상당부분을 公共圖書館이 맡아야 한다'<sup>51)</sup>고 한다.

현재의 상황은 미디어에 의해서 정당화되는 것만이 아니다. '그곳에서는 수많은 이데올로기적인 파수들이 보초를 서고 있다.'<sup>52)</sup> 예를 들면 교육에서는 오늘날에는 '그다지 숨겨진 案件'이 되지도 않는 것들이 資本主義制度의 관심과 요구에 맞게 상당히 많이 조정되고 있다. 선생님들이 그 제도에 대하여 문제제시하는 것은 거의 억제되고 있다. 학교에서 사용되어야 할 문헌에 대한 논의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이들 자신에게도 現代의 思想에 대하여 의문을 품거나 다른 생활방식이나 사회제도에 대하여 논의하도록 권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자신의 직업적인 분야로 가보면, 도시의 빈곤에 대한 지방정부의 접근법에 대한 보고서에서, John Stewart와 그의 동료들은 도서관이 빈곤의 극

46) Young, H. 'Demoralised dons in search of a champion', *The Guardian*, 10 December 1987, 21.  
 47) Trenaman, J., 'Libraries as a social force', in *Library Association Conference Proceedings Brighton 1958*, Library Association, 1959, 32-7.  
 48) For a readable explanation of Gramsci's argument, see Joll, J., *Gramsci*, Fontana, 1977.  
 49) Parkin, F., *Class inequality and political order*, St Albans, Paladin, 1972.  
 50) Simonds, A. P., 'On being informed', paper prepared for delivery at the 1981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mimeo.  
 51) Trenaman (1958), *op. cit.*  
 52) Miliband (1973), *op. cit.*

복을 도와주는 커녕 오히려 어느 정도는 否定的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그들에 의하면 도서관봉사는

봉사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빈곤지역을 차별함으로써 貧困을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상당 부분은 도서관금과 직원이 도서관의 대출기록을 토대로 할당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지역에서는 책은 수가 적고 더 오래된 것이며, 직원은 수도 적고 자격도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한 몇 가지 다른 방법으로도 차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圖書館規程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으로 행동하지 않는 어린이는 제외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노동자계급의 사람들은 낮은 또는 다른 요구를 갖게 된다는 이론을 바탕으로 貧困地域에는 다른 유형의 책을 제공하며...도서관봉사의 발전을 고려하기 위해 구성되는 실무단체에는 빈곤지역의 대표자에 포함된 적이 없었다.<sup>53)</sup>

이러한 견해는 Janet Hill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그는 *Children are People*에서 圖書館會員制와 관련된 일단의 도서관규정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어려운 점들을 강조하고 있다:

도서관을...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양식에 사인을 하고 거의 틀림없이 어떤 문서화된 身分證明書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은행구좌나 신용카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에게는 쉬운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中産階級認定의 상징을 만들 수 없고 공식적인 양식에 자기의 이름과 주소를 적는 데도 신경을 써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sup>54)</sup>

같은 해에 발행된 *Race Today*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人種差別主義는 공공도서관봉사의 실제문제이다. 봉사의 구조와 그 직무의 가치와 태도에서는 이를 점검도 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고 있다. 그 자체가 명백히 인종차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사회의 규범을 아무 생각없이 고수함으로써 그들은 인종차별주의자인 태도가 만연될 수 있는 풍토를 제공하는 것이다.<sup>55)</sup>

이러한 주장은 거의 13내지 14년전에 이루어진 것이고, Stewart의 저서는 당국의 소규모의 표본을 토대로 한 것이며, *Race Today*는 그것이 '流行的自由主義'(trendy liberalism)로 비난하고 있는 것이 오토될 가능성은 있지만 좋은 의도를 가진 행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은 많은 당국에 있어서는 改善된變化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이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갖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Hill이나 Stewart의 비판을 완전히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히 본인은 낮은 대출횟수를 보여주는 지역에 더 많은 수의 더 유능한 직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을 상당히 진보적인 도서관당국의 임원에게 설득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은 기억이 있다.

人種的 또는 社會的 不平等을 시정하는 데 있어서는 단지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 필요하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하여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편에서의 적극적인 차별이 필요하게 된다. Bunch가 말한 것처럼, '더 낮은 社會經濟集團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공공도서관은 모든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할 의무를 다함으로써 다시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뿐만 아니라 社會的 變化過程의 일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sup>56)</sup> 1979년에 발행된 *The Libraries' Choice*<sup>57)</sup>에서 教育科學部(Department

53) Stewart, J., Spencer, K. and Webster, B., *Local government: approaches to urban deprivation*, Institute of Local Government Studies, University of Birmingham, (1974?).

54) Hill, J., *Children are people*, Hamish Hamilton, 1973.

55) 'Books, libraries and racism: a poverty of thinking', *Race Today*, 5 (10), October/November 1973, 301-3.

56) Bunch, A., *Community information services*, Bingley, 1982.

57)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The libraries' choice* (Library Information Series No 10), HMSO, 1978.

of Education and Science)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봉사에 대한 유익한 현황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비록 이것은 도서관봉사가 만족할 수 있는 要求의 입장보다는 오히려 도서관에 대한 接近에 비추어서 불이익을 규정하는 경향이 있기는 하지만,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의 적극적인 차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물론 그와 같은 자원이 이용되는 데 있어서는 분배상의 관계가 있게 된다. 예를 들면 Levy와 그의 동료들은<sup>58)</sup> Oakland의 도서관 지원에 대한 분석에서 예산의 상당부분이 中産層과 上流層에 의해 불균형하게 이용되는 전문화된 중앙장서의 개발에 할당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藏書選擇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차별은 더 논쟁의 소지가 있는 분야이다. 도서관자료에 있어서의 인종 차별주의와 성차별주의에 관한 논쟁은 이제 널리 알려진 것으로 이는 다시 상세하게 검토할 필요도 없을 정도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서와 다른 사람들은 기존의 性差別的·人種差別的 環境을 굳혀주고, 정당화하며, 강화시켜 주는 경향을 갖는 인종적·성적 固定觀念(stereotype)에 대하여 우려해왔다는 사실로 충분할 것이다. 또한 役割模型(role model)-남자 주인공이 아닌 여자 주인공, 문제를 일으키는 배역이 아닌 긍정적인 배역으로서의 흑인-과 독자에게 알려진 경험을 반영하는 상황이 부족한 것도 책에서 발견하는 성격과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그와 같은 종류의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계급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주장이 가능할 것이다. 본인은 도서관학과 재학시절에 어느 강사가 알파벳의 초기교육에 대하여 설명하는 중에, 마술사와 촛불, 케익이 준비되어 있는 화려한 中産階級的 生일

파티를 그린 책을 노동자계급의 어린이가 이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와 같은 문제들은 '핸디캡을 가진'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사서들만의 관심거리는 아닐 것이다. 공공도서관은 또한 人種이나 階級的 變덕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영국사회가 가지고 있는 관심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증거를 얻는 데도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분명히 독서와 읽고 쓰는 능력은 社會階級과 관련이 있다. Clegg가 1970년대 초에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 '사회계급과 독서능력 사이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으며, 미숙련의 手作業勞動者의 자녀가 독서사회가 적어질 가능성은 전문직노동자의 자녀가 갖는 것보다도 6배나 된다.'<sup>59)</sup> 國立兒童局(National Children's Bureau)이 1958년에 시작한 經度別 연구에서도 거의 똑같은 결론을 얻고 있다.<sup>60)</sup> 즉 미숙련의 수작업노동자의 자녀가 非讀者(non-reader)가 될 가능성은 전문직부모를 둔 자녀의 15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의 교육적 경험을 증진시켜 주게 될 것이다. Bradford의 도서관공실함과 Calderdale Preschool Parent Book Project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책을 입수하게 되면 어린이들은 더 많은 것을 읽게 되고 더 빨리 읽을 수 있게 된다.<sup>61)</sup>

勞動者階級에게 있어서 책은 '비탈길에 놓여진 로프이며, 여러 사상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하여 우리가 제공하는 안내물인 것이다.' 젊은 Richard Hoggart에게는 '책을 얻는 데는 두가지 방법이 있었다. 하나는 공공도서관에서 빌리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헌책방에서 구입하는 것이다-2펜

58) Levy, F. S., Meltsner, A. J. and Wildavsky, A., *Urban outcomes: schools, streets and libra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59) Clegg, A., 'Recipe for failure', National Children's Home Convocation Lecture, 1972.

60) *National child development study: from birth to seven, the second report* (National Children's Bureau Studies in Child Development), Longman, in association with National Children's Bureau, 1972.

61) Reported in Wride, C. M., *Library needs and provision for pre-school children in inner city areas of Sheffield*, A study submitted in partial fulfi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in Librarianship at the University of Sheffield, 1987, unpublished dissertation.

스만 있으면 점심식사를 하러 Queen's Hotel에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책을 사러 서점에 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돈도 없고 그런 생활이 몸에 배이지도 않았다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sup>62)</sup>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집합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한 現實의인 代案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케이블과 컴퓨터가 판을 치는 시대에는 더욱 심각해지게 된다. 몇년전에 '부유층의 케이블에서 부스러기'<sup>63)</sup>를 받아가게 되는 情報貧困層(the information poor)에 대해 쓴 적이 있었다. 1987년의 IFLA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에서 Trevor Haywood도 똑같은 아이디어를 더 훌륭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만일 우리의 정열적인 참여와 도움이 없다면, 전세계의 비영리적인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은 당당한 電子式家庭에는 들어가지도 못한채 밖에 그대로 앉아있게 되고 그 안에서는 새로운 혈통의 하이테크의 귀족들이 盲人들(the blinds)에게 전화를 걸어 그들을 끌어내리게 될 것이다.'<sup>64)</sup>

정보와 사상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의 불평등은 불평등의 제일 중요한 요인이 되는 階級과 權力의 패턴과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고서는 완전히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은 훨씬 더 광범위한 사회적 문제의 일부이다. 미국의 한 출판물에서 '同等한 機會를 제공하는 열쇠를 공공도서관에서 찾게 될 것'<sup>65)</sup>이라고 실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도서관은 수행해야 할 어떤 역할을 갖게 된다. 그러나 Tawney가 상기하고 있듯이, '수백만의 어린이들이 목욕탕과 제대로 갖추어진 화장실, 오락시설, 탐구실, 꿈을 꿀 수 있는 공간도 없이 貧民街에서 살고 있는데도 교육의 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삶의 기회의 사회적 분배를 공평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sup>66)</sup> 도서관은 教育의 機會를 확대하고, 오락시설과 실제의 꿈을 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국사회의 構造的 不平等을 감소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는 더 광범위한 운동의 일부로서만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와 같은 운동에는 전문적 정치적 참여가 모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2) Hoggart, R., 'Books that truly did furnish our minds', *The Observer*, 28 July 1985, 10.

63) Usherwood, R., 'Cable and our principles', *Library Association Record*, 84 (12), December 1982, 429.

64) Haywood, T., 'The electronic aristocracy: some causes for concern', paper prepared for IFLA General Conference 1987 (84-PUB-3/INF-3-E).

65) Seymour, W. N. Jr, and Layne, E. N., *For the people: fighting for public libraries*, New York, Doubleday, 1979.

66) Tawney, R. H., *Equality*, Unwin, 1964.